

언어전파로 살펴본 해역언어학적 어휘 연구*

- 한국의 박래어와 일본 진출 외행어를 중심으로 -

양민호**

<目 次>

- | | |
|------------------|------------------|
| 1. 들어가며 | 3. 외행어로 살펴본 언어전파 |
| 2. 박래어로 살펴본 언어전파 | 3.1 외행어의 사용 사례 |
| 2.1 박래어의 패턴 | 4. 나오며 |

Key words : 언어전파(Propagation of language), 해역언어학(Sea Region linguistics), 외행어(Gaikogo), 외래어(Loanwords), 박래어(Imported words), 대조 연구(Contrastive Analysis)

<要旨>

言語伝播から見た海域言語学的語彙の研究 - 韓国の舶来語と日本進出の外行語を中心に -

梁敏鎬

本論文は韓国と日本の交流を通じて使われている語彙（舶来語と外行語）について説明した。言語交流と伝播という側面から基層文化を理解しようとした。

本稿で言及した語彙のパターンは言語地理学の伝播原則のうち,主に隣接伝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일본어학(해역언어학)

播原則にあたる。

地理的近接効果を通じて最も近い国である韓国と日本,とりわけ日本の九州に伝わった語彙(外行語)の例に挙げた。これらの語彙は海という空間を媒介として移動したと考えられる。

最も短い距離の空間から伝播し、定着したと判断できる。本論文では紙面の限りがあり、多くの例をあ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今後,地域を拡大し,語彙を増やして東北アジア海域の言語基層文化について理解を深めたいと思う。

1. 들어가며

글로벌 시대, 우리는 정보의 바다를 수영(遊泳)하고 있으며 외국문물의 유입과 정착 그리고 그것과 함께 들어온 말들의 생명력을 매일매일 체감하며 살고 있다. 왕성히 사용되다가 사라진 말, 그리고 유행하다가 정착된 말 이렇듯 다양한 말이 존재한다. 이렇게 다양한 말 중에는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어휘들도 있지만 이웃 나라와 교류를 통한 언어전파¹⁾에 의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

학계에서 외래어(外來語)라는 용어를 우리는 자주 접하였지만 박래어

1) 언어지리학에서 언어전파는 다음과 같다.

-인접분포의 원칙 (인접지역 원칙)

말은 땅을 기듯이 전파되며 변화는 인접한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말의 지리적 분포는 역사적 관계를 반영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서 다른 말이 A·B·C의 순서로 분포하는 경우, 말은 A>B>C 또는 C>B>A의 순서로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A·B·A의 순서로 분포되고 있는 경우, 원래 A만이 분포하고 있던 지역 안에 B가 침입하여 A의 분포 영역이 분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주변분포의 원칙 (인접지역 원칙)

말이 음운 변화가 아니라 전혀 다른 말로 바뀌었을 경우 문화적 중심지에서 먼 곳에 오래된 형태의 말이 남기 쉽다. 문화적 중심지의 언어는 그 권위와 위엄에 의해서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어 수용되기 쉽다.

-고유변화의 원칙

말에는 각각 고유한 역사가 있으며, 어휘에 따라 별도의 지리적 분포를 나타낸다. 이는 어떻게 보면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언어전파 양상과는 다르게 별개처럼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舶來語)라는 말은 매우 생소하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바꿔 말하면 ‘바다를 건너 들어온 말’이다.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진행되어 왔다. 그 가운데 언어교류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매우 활발한 상태이며 현재는 더욱 다양한 패턴으로 언어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언어교류의 양상을 본 논문에서는 바다 즉 해역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 가운데 박래(외래) 어휘에 대해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일본의 언어전파 양상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 박래어로 살펴본 언어전파

사실 앞서 이야기한 박래어는 박래품과 맥을 같이한다. ‘가베(咖啡/珈琲)’ ‘불란서(仏蘭西)’ ‘양장(洋裝)’ 등은 모두 개화기의 신문물 이름이며 이것들이 등장할 때 ‘박래품’이라는 말도 함께 등장한다. 이러한 어휘는 사전에는 있으나 지금은 사어(死語) 수준이 되어 버렸다. 그렇지만 학술적 용어로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전문용어이다. 한자로는 ‘舶來品’이므로 배로 들여 온 물품이라는 뜻이고, 구한말 당시에는 서양에서 배에 실려 들어온 신식 물품을 가리켰다. 영어로 풀이하면 ‘import’인데, 전치사 ‘in-; 안에, 안으로’과 명사 ‘port; 항구’가 조합(‘import’의 ‘m’은 전치사 ‘in’의 ‘n’이 동화작용으로 변한 것임)되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결국 ‘항구 안으로 들어다’라는 뜻이며, 이것을 ‘舶來品’이라는 말로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 어휘에서는 세계무역 또는 식민지 개척의 냄새가 짙게 묻어 나고 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아시아에 비해 자원이 부족하여 자급자족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다른 나라로부터 물자를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정상적인 수입이 안 되면 약탈이라도 해 오지 않는 한 생활유지가 곤란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이나 스페인, 프랑스 등의 해적선이 실재했던 것이 그 방증이다. ‘항구 안으로 무엇인가를 들이는 일(in+port)’이 곧 수입(import)인데, ‘중요한’이라는 의미의 ‘important’가 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또 물자가 부족한 나라에서의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단적으로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물자의 국내로의 유입 방법은 많으나, 물류수단이 최첨단의 길을 걷고 있는 현재에도 바닷길을 통해 항구로 들어오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대로이다. 따라서 항구에는 물건이 다양하고 많을 뿐 아니라 사람 또한 많이 모이게 된다. 그러니 항구 주변에는 도시가 형성되어 대도시로 성장해 가고, 새로운 것들도 등장하여 가슴 설레게 하는 무엇인가를 낳아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로 부풀게 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다르지 않다. 운요호사건으로 조선과 일본 사이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면서 1876년에 부산항이 개방되었고, 1880년 5월에 원산과 1883년 1월에 인천(仁川)을 순차적으로 개방함으로 개항하면서 열강과 근대적 교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들 항구도시에는 당연히 진귀하고 값비싼 물건들, 즉 박래품들이 흘러들어와 사람들의 호기심어린 관심을 자극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람들에게 구경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 제공해주는 역할도 했다.

그렇지만 그 같은 박래품들은 그에 붙여진 이름에조차도 개항을 경험하며 새로운 세계를 맛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게 하기에 충분한 무엇인가가 묻어 있다. 그러나 다대수의 사람들은 실물을 보고 이름을 아는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신문광고를 통해 알았고, 그렇게 안 사람들의 입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것들은 주로 시계, 양복, 구두, 양산이라든가 향수, 석유, 비누, 바늘 같은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물품들은 서구 열강으로부터 직접 들어온 것들도 있었지만, 일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받아들인 것들이 많았는데, 그때 그에 붙여진 위와 같은 박래품의 어휘를 패턴별로 살펴 보겠다

2.1 박래어의 패턴

박래어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보느냐에 따라 연구자들의 관점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근대’라는 시간 범주 안에서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이 외국어의 음에 대하여 한자음을 가지고 나타내는 음역 패턴도 넓은 의미에서 박래어의 패턴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자어 음역이라는 것은 한자음을 한국 발음으로 읽기 때문에 본래의 소리와는 다르게 발음되는데, 이와 같은 음역어는 주로 국가나 도시 이름에 사용된다.

2.1.1 외국어의 음을 한자음으로 표현한 음역 패턴

- 네덜란드: 화란(일본어: 和蘭), 하란(중국어 정체: 荷蘭, 병음: Hólán)
- 러시아: 노서아(일본어: 露西亜 ロシア) 또는 아라사(중국어: 俄羅斯, 병음: éluósī)
- 몽골: 몽고(중국어: 蒙古, 병음: Měnggǔ)
- 베트남: 월남(중국어: 越南, 병음: Yuènnán)
- 스웨덴: 서전(중국어: 瑞典, 병음: Ruidiǎn)
- 스페인: 서반아(중국어: 西班牙, 병음: Xībānyá)]
- 이집트: 애급(중국어: 埃及, 병음: Āiji)
- 이탈리아: 이태리(일본어: 伊太利 イタリー, 일본어: 伊太利亜 イタリア)
-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중국어 정체: 印度尼西亞, 병음: Yīndùnìxīyà)
- 캐나다: 가나다(加那陀, 일본어: 加奈陀 カナダ), 가나대(중국어: 加拿大, 병음: Jiānádà)
- 포르투갈: 포도아(중국어: 葡萄牙, 병음: Pútáoyá)
- 프랑스: 불란서(일본어: 仏蘭西 フランス)
- 필리핀: 비율빈(일본어: 比律賓 フィリピン)

이와 같이 프랑스를 ‘불란서(仏蘭西)’, 러시아를 ‘아라사(俄羅斯)’, ‘필리핀’을 ‘비율빈(比律賓)’ 등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중국어 또는 일본어의 발음을 우리 한자음에 대입하여 만든 어휘들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커피’를 ‘가매(咖啡/珈琲)’, 클럽을 ‘구락부(俱樂部)’와 같이 표현하였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음역 패턴에 해당된다.

2.1.2 단어의 앞부분에 ‘양(洋)’자를 놓아 ‘양(洋)’식으로 하는 패턴

다음으로 양(洋)-이라는 접두어가 붙은 형태이다. 이 패턴은 엄밀히 말하면 외래어의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다만 ‘박래어’라는 용어의 범주 안에는 포함시켜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박래어의 어원이 박래품에 기인한 것이기에 당시 수입된 물건에는 양(洋)-이라는 접두어가 붙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서양에서 바다를 건너 들어왔거나 서양식으로 만들어졌다

는 뜻으로 이 같은 패턴의 이름이 붙여졌다.

<표1> 접두어 ‘양-’이 붙은 어휘 예

예	조합	의미
양주	양 + 주(酒)	전통주와 대비되는 의미의 술
양옥	양 + 옥(屋)	한옥과 대비되는 의미로 서양식 가옥
양동이	양 + 동이	물기는 데 사용하는 질그릇이 동이인데 여기에 서양에서 들어온 비슷한 형태의 그릇
양순대	양 + 순대	사용에는 적지만 소시지를 일컫는 말
양재기	양 + 자기(磁器)	서양에서 온 도자기, 역행동화로 인한 음 변화
양행	양 + 행(行)	행은 ‘다니다’라는 한자어 행에서 유래, 주로 외국과의 무역을 하는 회사를 일컫음
양철	양 + 철(鐵)	쇠가 우리말, 우리와 다른철이 들어와서 양철
양식	양 + 식(食)	한식과 대비되는 서양 음식
양회	양 + 회(灰)	토목, 건축 재료로 사용되는 접합용 가루. 시멘트를 의미함

이외에도 ‘양자’가 붙은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양궁, 양단, 양담배, 양란, 등의 단어가 다수 존재한다.

2.1.3 외국어를 어원으로 하는 패턴

다음으로 외국어를 어원으로 하는 패턴이다. 이 패턴의 이름에는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한말 언어의 한 단면이 잘 드러나 있어 당시의 언어생활에 대한 상상을 가능케 한다. 구한말이란 서양과 동양의 문물이 공존하는 시공(時空)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패턴의 이름으로부터는 당시의 새로운 먹거리와 볼거리 등을 느낄 수 있다. 그것들을 어원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페인과 포르투갈 어원의 카스텔라와 메리야스

<미스터 선사인>에 등장한 개화기 여성들이 나누어 먹던 카스텔라는 스페인어로 성(城)을 뜻하는 카스틸료(catillo)에서 유래하는데, 11세기 카스티라(Catilla)왕국의 포르투갈어 발음 카스텔라(Castela)가 ‘카스텔라’의 이름이 되었다. 그것이 16세기 초 포르투갈에서 일본으로 전해지고, 다시 일본을 통해 우리나라에는 들어온 것이다.

또한 ‘메리야스’라는 이름은 스페인어 ‘메디아스(medias)’와 포르투갈어 ‘메이아스(meias)’가 와전된 것인데, 당시는 양말을 가리켰던 말이다. 그런데 양말이 신는 사람 발의 대소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든다는 데에서 중국에서는 크건 작건 상관없다는 뜻으로 ‘막대소(莫大小)’라 했다. 그러한 특성 때문에 이 이름은 신축성 좋은 직물로까지 확대되어 불리게 되었고 결국은 오늘의 메리야스가 되었다.

·네덜란드의 칸델라(kandelaar)

다음으로 많은 바래품 중 팔목할 만한 것으로 칸델라(kandelaar)를 들어도 무리는 아니라 생각되는데, 이는 본래 ‘호롱’을 뜻했으나 훗날 함석 같은 것으로 만든 호롱에 석유를 넣어 불을 켜서는 들고 다니는 등의 이름으로 쓰이게 되었다.



<사진1>칸델라

1876년 일본에서 석유가 수입되면서 그것을 등유로 사용하고부터 선박이나 광산 등에 사용되었는데, 그 역시 이름과 함께 네덜란드에서 일본으로 건너가 다시 우리나라로 건너온 것이다.

·사이다와 ‘고뿌’

다음으로 사이다와 고뿌라는 어휘가 있다. ‘사이다’는 본래 영국에서 새콤한 사과주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레몬향의 탄산수로 탈바꿈되었다. 그것이 요코하마에서 인천항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1905년에 인천탄산수제조소가 세워져 공전의 히트를 거두게 되었다. 그리고 광복 후 1960—70년대에 한 코미디언이 불러서 화제를 모은 노래의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뿌 없으면 못 마십니다”라는 가사가 말해 주듯 사이다는 개항지 인천의 랜드마크와도 같은 역할도 했다. 그리고 ‘고뿌(Kop)’는 네덜란드로부터 일본에 건너갔다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었다.

이와 같은 박래어의 예를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 말에는 근대 바닷길을 통해 항구로 들어온 새로운 문물 ‘박래품’의 향기가 감돌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상에서 언급한 것들이 배를 타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말들이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말도 존재한다. 그 어휘에 대하여 해역인문학적 시점에서 살펴 보겠다.

3. 외행어로 살펴본 언어전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래품은 주로 물건에 집중되어 왔다. 다만 근현대에 접어들어서는 물품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박래어 또는 외래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마린(Marine), 비치(Beach), 스시(すし), 마라샹궈(麻辣香鍋) 등이 있는데 게다가 요즘에는 다양한 국적의 말도 많이 섞여 있다.

이러한 말 중에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일본어가 간혹 섞여 있기도 하다. 도래작물 중에서 ‘고구마’가 그 중 하나다. 고구마는 원래 우리에게 감저(甘藷)로 알려져 있다. 다만 쓰시마(對馬島)에서 고구마 종자를 들여온 조선

통신사 조엄(趙巖)이 쓰시마 방언으로 기근에 매우 도움이 되는 효행 깊은 구황작물이라는 뜻의 ‘고코이모(孝行芋)’를 일본식 발음으로 해사일기에 기록하였다.

결국 이 음이 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고구마의 어원이 된 것이다. 일본에서 고구마라는 말은 사쓰마(薩摩) 번의 이름을 따서 ‘사쓰마이모(薩摩芋)’라고 부르고 있다.

다만 지역 방언 특히 한국과 매우 가까운 규슈 쓰시마 방언이 바다를 건너 한국으로 들어와 사용된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어 속에 알아채지 못하는 일본어가 존재한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알아채지 못하는 한국어 역시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며,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 간 우리말인 것이다. 하지만 일본에서도 다양하게 존재하는 외래어 중에서 특히 한국어를 찾기란 쉽지 않지만 일본 내에 알아차리지 못한 한국어가 존재하고 이와 같은 말을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 설명하도록 하겠다.

3.1 외행어의 사용 사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박래어 또는 외래어가 ‘바다를 건너 우리말 속에 들어온 것’이라면 ‘외행어(外行語)’와 같은 반대의 개념도 있다.

외행어란 ‘바다를 건너 외국으로 건너 간 우리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의 말이 세계를 누비며 뻗어 나간 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원래 외행어에 대한 개념은 1977년 일본의 미와(三輪)가 ‘서양 언어 속 일본어 유래의 차용어’라 정의하였고, 1997년 다니엘 룡은 ‘일본어 기원의 영어’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이노우에(井上)가 ‘영어 또는 인근 국가의 말 속에 파고든 일본어’라고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이를 우리말에 대입시켜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우리말’, 예를 들어 김치 또는 불고기 등과 같은 말이 이에 해당된다. 결국 이런 말들은 우리가 전세계에 수출한 말이 되는 셈이다. 이렇게 자국을 떠나 전파된 말 그것을 외행어라 칭할 수 있다. 전술한 박래어와 외행어는 방향성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발신하는 쪽에서는 ‘외행어’이며 수용하는 쪽에서는 ‘박래어 또는 외래어’라 칭할 수 있다. 이러한 외행어의 진출은 그 나라의 문화 우수성과 연관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외행어에 대해서 특히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

장 가까운 일본, 이웃으로 건너 간 우리말에 한정하여 설명하겠다.

▶ 일본으로 건너 간 한국어

여태까지 연구는 주로 우리말 속에 드러난 일본어의 흔적만을 찾으려 했으며 이를 감추려 한 연구들이 많았다. 다만 우리말 중에 자랑스럽게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 간 어휘가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본에게 이것은 ‘박래품’이고 ‘박래어’이고 한국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외행어’인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언어전파의 원칙 중 지리적 근접 효과에 가깝다. 한국에서 건너 간 말 중에 일본 규슈(九州) 지역에 상륙한 우리말이 상당수 엿보인다. 특히 해역언어학적 입장을 대표하는 말로 ‘멘타이코’라는 어휘가 있다.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라코(たらこ)’라는 말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규슈 또는 긴키(近畿) 지방에서는 줄여서 ‘멘타이(メンタイ)’ 또는 ‘민타이(ミンタイ)’라고 부른다. 여기서 멘타이(メンタイ)는 우리말 명태가 음차되어 전래된 것이다. 한국에서 명태의 어원은 다음과 같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명천(明川)에 사는 어부 중에 태씨(太氏) 성을 가진 자가 있었다. 어느 날 낚시로 물고기 한 마리를 낚아 고을 관청의 주방 일을 보는 아전으로 하여금 도백(道伯)에게 드리게 하였는데, 도백이 이를 매우 맛있게 여겨 물고기의 이름을 물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하고 단지 “태 어부가 잡은 것이다.”라고만 대답하였다. 이에 도백이 말하기를, “명천의 태씨가 잡았으니, 명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이 물고기가 해마다 수천 석씩 잡혀 팔도에 두루 퍼지게 되었는데, 북어(北魚)라고 불렀다.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300년 뒤에는 이 고기가 지금보다 귀해질 것이다.” 하였는데, 이제 그 말이 들어맞은 셈이다. 내가 원산(元山)을 지나다가 이 물고기가 쌓여 있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오강(五江)에 쌓인 뿔나무처럼 많아서 그 수효를 헤아릴 수 없었다.

李裕元(1871) 『林下筆記』 중 발취

이와 같이 한국에서 사용되는 명태의 용어가 하카타(博多) 지방에서 만들어진 명란젓에 멘타이코(メンタイコ)로 이름 붙여지면서 어느새 이 지역 특산물이 되었고, 지역을 넘어 일본 전역에서 인기가 구가하고 있다.

이 멘타이코는 원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반도에서 퇴각해온 사람들이

그 시절 한국에서 먹었던 명란젓의 맛을 그리워하며 하카타에서 그 맛을 재현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어휘의 유입과 정착 과정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에서 보편화되었고 일상생활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그 나라의 말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라코라고 사용했던 기존의 일본 어휘를 몰아내고 멘타이코가 자리 잡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p>5個以上でおまとめ割引15%OFF 美肌辛子明太子100g ¥1,080(税込)</p> <p>一皿一皿がほどよい大きさで、質・量ともに充実した「美味」は、辛子明太子のおいしさが十分楽しめる人気のお品。</p> <p>数量: <input type="text" value="1"/></p> <p>カートに入れる ></p>	 <p>送料無料 できたてめんたい熟成色揚げ230g ¥2,580(税込)</p> <p>揚げあがったばかりのできたて辛子明太子(揚げ)です。※完全予約制のため、詳細ページで発送日程を確認の上ご注文ください。</p> <p>数量: <input type="text" value="1"/></p> <p>予約する(詳細ページ) ></p>	 <p>やまやトライ明太子 ¥1,296(税込)</p> <p>お歳暮させることで辛子明太子本来の塩み、コクや早みが増す。</p> <p>数量: <input type="text" value="1"/></p> <p>カートに入れる ></p>
 <p>博多のごはん 辛子明太子粒100g ¥756(税込)</p> <p>めんたいチューブの博多のごはん辛子明太子粒。ピリ辛の明太子がご飯にぴったり。さっと出して食べるだけ！手軽に本格的な味と明太子が楽しめる！</p> <p>数量: <input type="text" value="1"/></p> <p>カートに入れる ></p>	 <p>明太いわし粒140g ¥540(税込)</p> <p>厳選した国内産の新鮮なイワシを美味しくして水分を飛ばし、当社独自の秘伝のタレでイワシ特有の臭みを消し、最後までさらかく焼き上げました。</p> <p>数量: <input type="text" value="1"/></p> <p>カートに入れる ></p>	 <p>早期特典送料無料 美肌辛子明太子(粒) 500g ¥5,400(税込)</p> <p>一皿一皿がほどよい大きさで、質・量ともに充実した「美味」は、辛子明太子のおいしさが十分楽しめる人気のお品。</p> <p>数量: <input type="text" value="1"/></p> <p>カートに入れる ></p>

<사진2> ‘멘타이코’ 어휘가 사용된 다양한 야마야의 상품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멘타이코’의 경우 이미 일반 대중 특기계층문화) 그룹 중에서 하층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정착단계를 훌쩍

2) 주로 문화는 상층(上層)·중간층(中間層)·하층(下層)의 3계층으로 나뉘어 진다. 이러한

넘어섰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진2와 같이 멘타이코를 활용한 다양한 상품군이 존재하고, ‘다라코(たらこ)’라는 말 대신 멘타이코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멘타이코 제조를 시작한 가게들이 이 지역에 많아지면서 역과 공항 등에서 팔리기 시작하였고, 자연스럽게 일본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 나갔으며 일본 속에서 한국의 맛 한국어가 전래되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다음으로 규슈 지역 특히 고토 열도(五島列島)와 야마구치(山口) 지역 방언 중에는 한국에서 건너 간 ‘チング(친구)’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다.



<사진3> ‘チング(친구)’라는 이름의 나가사키 이키 시 重家酒造 소주

경우, 주로 상층문화의 경우, 소수의 정신적 지도자층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 문화는 상층문화가 중간층에 불완전한 모양으로 받아들여진 문화이다. 마지막으로 하층 문화는 이들 상층에서 형성된 문화가 민족의 모태인 서민 대중으로 여겨지는 기층(基層 Mutterschichten)에 뿌리내린 것으로 이 기층 속에 유지되어 있는 문화를 기층문화라고 부른다. 이러한 기층문화를 형성하는데 있어 언어의 접촉과 전파를 통해 민족의 전통이 형성 및 유지되어 간다고 볼 수 있다. 언어전파의 경우 상층의 교류보다는 하층에서의 교류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서민들의 언어생활이야말로 기층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표준어로서 일본어는 도모다치(友達)이다. 전국적으로 이 어휘가 사용되지만 유독 규슈 지역 인근 그리고 야마구치 지방에서는 도모다치(友達)보다 친구라는 어휘의 사용이 엿보인다. 그 중에서 지리적 근접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쓰시마와 규슈 사이에 있는 나가사키(長崎) 이키(壱岐) 방언에도 어릴 때부터 친했던 친구, 또는 사이좋은 친구를 ‘칭그’라고 부른다.

특히 이 지역에서는 <사진3>과 같이 ‘ちんぐ(친구)’라고 이름 붙인 소주도 판매되고 있어 깊숙하게 지역에 뿌리내린 증거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쓰시마 지방에서도 매년 8월 ‘칭그音樂祭(친구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 간 우리말이며 이것을 외행어의 범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할 것이다.

또 우리 말 중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어른 남자라는 의미의 ‘총각(總角)’이라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 총각이라는 말이 일본으로 건너 간 외행어라는 사실은 이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일본 발음으로 ‘총가(チョンガ)’라고 불리는 이 말은 ‘결혼하지 않은 독신남자’를 의미하는데 한국에서 예전부터 머리를 땅아 묶고 다닌 테에서 기인한 한자 어휘를 음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총각이라는 말이 한자어였다는 것도 신기하고 그 말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가서 다이쇼(大正) 시대 초기에 활발히 사용되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다음으로 일본 국민이 거의 매일 같이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어인 줄 모르고 사용되는 말 중에 ‘차린코(チャリンコ)’라는 어휘가 있다. 이는 우리나라 자전거의 발음이 전래되어 일본의 지역 방언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는 ‘차리(チャリ)’라고도 줄여 부르기도 하고 게다가 활용형으로 ‘마마차리(ママチャリ)’와 같이 두 단어를 덧붙여 ‘엄마들이 주로 타는 자전거’ 특히 앞에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를 부를 때 사용한다. 원래 ‘지텐샤(自転車)’라는 표준어가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차리’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된다.

‘차린코’의 어원은 자전거의 벨소리 ‘차령(따르릉)’과 우리 한국말 ‘자전거(チャジヨンゴ)’에서 왔다는 두 가지 설이 공존하지만 한국에서 건너왔다는 설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 ‘차리’, ‘차리키(チャリ機)’는 효고(兵庫), 이바라기(茨木) 지역 방언에서도 사용되며 일본 전역으로 퍼져나가 일반인에게 매우 친숙한 단어이다. 그렇지만 그 말이 현해탄을 건너 간 우리말

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사진4> ‘마미차리(ママチャリ)’ 출전: 위키피디아

이외에도 메이지(明治) 시대 이후에 건너 간 기상(キサン 기생), 누쿠테(ヌクテ 늑대), 온돌(オンドル)과 같은 외행어도 존재한다. 현재는 이와 같이 일본인이 알아채지 못하고 사용하는 우리말뿐만 아니라 김치(キムチ), 갈비(カルビ), 국밥(クッパ), 비빔밥(ビビンバ), 나물(ナムル) 부침(チヂミ)과 같이 공공연하게 일상생활 속에 자리 잡은 외행어들도 많다. 요컨대 일본은 가장 가까운 외국이었지만 지금까지 일본 내 외행어 어휘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으며 이와 같은 해석언어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는 새로운 시도라고 볼 수 있다.

4. 나오며

이상과 같이 언어전파에 대한 해석언어학적 입장에서 논문을 정리하였다. 박래어(외래어), 그리고 외행어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일본의 교류를 통해 만들어지고 사용되는 어휘였다. 다만 이 어휘의 언어

전파 안에는 강제적인 것과 자발적인 것이 공존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자의든 타의든 전파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사실은 언어교류와 전파라는 측면에서 바다 또는 해역은 매우 중요한 매개체임을 알 수 있었으며, 어휘교류를 이해하는데 있어 핵심 요소임을 이해하였다. 주로 논문 후반부에서 언급한 외행어의 경우에는 언어지리학의 언어전파 원칙 중 주로 인접전파 원칙에 해당된다. 지리적 근접효과를 통한 가장 가까운 한국과 일본 규슈 사이에서 전파된 어휘를 예로 들었다.

이는 바다라는 공간을 이동하여 전래된 것이며, 어쩌면 가장 짧은 구간이었던 곳에서 빈번히 전파되어 정착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면상 많은 예를 들지 못하였지만 향후 지역을 확대하고 어휘를 늘려 해역언어학 중 언어기층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현재 한국의 매력을 전세계에 선보인 BTS(방탄소년단)의 웹블리 스타디움 공연, 이제는 한국의 문화는 일본을 넘어 세계로 진출하고 있다. 그들이 발신하는 문화(Soft-power)는 이제 세계의 문화로 성장하게 되었다. 이들 멤버들이 언급하고 팬클럽이 따라하는 어휘들 Maknae(막내), Aegyo(애교), Sunbae(선배), Hoobae(후배), Hyung(Hyung), Noona(누나), Oppa(오빠), Unnie(언니)와 같은 우리말은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외행어가 되었다. 또 한 그들이 표현하는 행동양식 ‘손가락 하트(Korean Finger Heart)’ 역시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메이드인 코리아, 대한민국의 많은 외행어가 바다를 건너 일본, 전세계로 전파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金松泰(1992), 「고구마의 어원과 전래경로에 대하여」, 『향토사보(4)』, 울산향토사 연구회, p.87
- 김재승(2001), 「고구마의 조선 전래」, 『동서사학(8)』, 한국동서사학회, p.114
- 노성환(2015) 「동아시아의 고구마 전래자와 현창문화」, 『동북아문화연구』, 43집 pp.59-78
- 양민호(2017) 「소프트 파워로서 일본과 일본어에 관한 연구-한일 대학생 앙케트를 중

심으로-, 『日語日文學研究』 103호, p.125-142

井上史雄(2001) 『日本{語は生き残れるか} PHP新書

ダニエルロング(1997) 「外行語に対するアメリカ人の意識とその使用」 第66回変異
理論研究会

三輪卓爾(1977) 「外行語の昨日と今日」 『言語生活9月号』 筑}摩書房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사전

향토문화사전

나무위키 <https://namu.wiki/w/%EB%AA%85%ED%83%9C>

위키피디아 일본판

<https://ja.wikipedia.org/wiki/%E3%82%B7%E3%83%86%E3%82%A3%E3%82%B5%E3%82%A4%E3%82%AF%E3%83%AB>

<https://ja.wikipedia.org/wiki/%E8%BE%9B%E5%AD%90%E6%98%8E%E5%A4%AA%E5%AD%90>

멘타이코 전문점 야마야 홈페이지

<https://www.shokutu.com/>

나가사키 이키 시 重家酒造 홈페이지

<https://www.omoyashuzo.com/product.html>

저자명 : 양민호(Yang, Min-Ho)

이메일 : minhojinsei@gmail.com

접수일 : 2019. 07. 20.

심사개시 : 2019. 07. 22.

심사완료 : 2019. 08. 11.

<Abstract>

A study on Sea Region Linguistics lexicon from the propagation of language
- Focused on Loanword in Korea and Gaikogo in Japan -

Yang, Min-Ho

In this paper, several vocabulary words used through exchanges are described in Korea and Japan. The foundation culture was understood in terms of language exchange and propagation. The vocabulary pattern mentioned here corresponds mainly to the adjoining propagation principle of linguistic geography. It cites as an example a vocabulary that has spread between Busan and Kyushu, among others, the closest Korea and Japan through geographical proximity effects. It was introduced by moving around the ocean. It was probably the shortest section that was spread and settled frequently. Many examples have not been given in this paper. However, the purpose of the project was to help them understand the language-based culture of Northeast Asia by expanding the region and increasing their vocabulary.